

한자·한문 인증 시험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예원*

〈 차례 〉

1. 머리말
2.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3. 검정기준에 관하여
4. 한자·한문 인증시험의 실제
5. 맺음말 - 개선방안

1. 머리말

‘한자문화권’이라는 개념이 극히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작금이다. 한 때 유교자본주의론에 입각한 ‘유교문화권’이라는 개념으로 동아시아를 지칭하기도 하였으나, NIES지역에 관한 스포트라이트가 사그라지면서 그 호칭도 약화되었다. 반면에 동아시아 지역의 공용문어(公用文語)인 한자에 주목하여, 그 특성을 부각한 ‘한자문화권’이라는 개념은 더욱 그 설득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¹⁾

* 조선대학교 강사

- 1) 일본은 일찌감치 ‘동아시아의 정체성의 규명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의 동양학 연구자들이 ‘유교문화권’이라는 개념으로 동아시아를 규정하려할 때 일본에서는 ‘한자문화권’이라는 개념의 형성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면, 1988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21세기와 한자문화권’이란 국제심포지엄은 이러한 의도를 바탕으로 한 학술회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중국학을 하는 연구자들

한자가 공용문어였던 시절에 남겨진 창작물을 단순히 창작된 지역(나라)만의 소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자를 독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공용자산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한자를 통하여 인식 가능한 공통의 교양이 토대가 되어, 한자문화권 안에서 보다 친밀한 국제적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동아시아의 한 특색을 부각한 한자문화권이라는 틀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한자사용의 중요성을 새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을 전후하여 민간단체들에 의해 한자·한문 학습의 중요성이 제고되어 중·고교의 한자교육 강화와 초등학교 한자과목의 도입이 주장되었다.²⁾ 이후 각 민간단체들은 한자실력을 검정하는 급수시험을 시행하였고, 2000년 교육인적자원부는 한자능력검정시험을 국가 공인자격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2001년도부터 한국어문회는 국가공인 한자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2003년에는 한자검정시험에 74만 명이 응시하였고, 올해는 1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³⁾

더욱이 2003년 12월 30일에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소속 회원사에 올해부터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한자구사능력 시험을 반영토록 적극 권고했다. 그런가 하면 대학들도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해 서울대는 '동아시아의 공용어인 한자를 배우자'는 취지 하에 2004년 합격생에게 한자 특별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는 등 신입생 한자학습을 의무화하였다. 서울대는 또 한글로 된 『대학국어』 교과서를 국·한문 혼용으로 개편하고, 자체 한자학습 교재를 개발하는 등 한자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서울대 관계자는 "동아시아에서 활동하려면 한자문화권에

이 한자문화권에 관한 저서를 잇달아 발표하여 그 인식의 공감대를 넓혀갔다.

- 2) 예를 들면 한자교육진흥회는 1990년 11월 8일 한자교육운동 법인으로 문교부의 인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 3) 한국어문회의 이광진 검정관리부장이 스포츠 서울의 김희영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다.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서울대는 한자 특별시험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합격생은 재학 중 재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또는 기존 한자인증시험에서 일정 급수 이상을 획득한 신입생은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였다.⁴⁾ 한편 2005학년도부터는 일부 대학이 입시에서 한문을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자학습 열풍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은 물론이고 초·중·고교생까지 한자인증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자시험 준비생 가운데 초등학교생이 전체의 60%이고, 중학생이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의 한자능력검정시험 응시 상황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일본은 중고생 응시자가 계속 늘어나, 1999년 100만 명에서 2003년에는 165만 명으로 무려 60만 명이 늘어났고, 전체응시자의 80%가량을 중고생이 차지하고 있다.⁵⁾ 중고생의 한자검정시험 응시자가 늘어난 것은 입시에서 한자검정 급수를 받은 수험생을 우대하는 고교와 대학이 늘어가는 추세 때문이다. 한자실력을 우대하는 대학·전문대학은 2003년 8월에 483개교로 2년 전에 비해 80개교가 증가하였고, 고교는 395개교로 3년 전에 비하여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또 재학 중 3급 이상에 합격하면 국어과목의 일정 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고교도 391개교에 이른다. 일본의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중되어 한자능력검정 시험의 응시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글전용의 어문정책 하에 한자·한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한자검정시험의 양상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 어문회가 국가공인자격을 인정받은 2000년 이래 초등학교 대상의 한자 사교육 시장은 3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한자공인자격증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란에 등재 가능해지면서 일어난 위력이다. 국어, 중국어, 수학, 토익, 토플로는 아무리 잘해도 자격

4) 『동아일보』 2003년 9월 14일 전지원 기자.

5) 일본 문부과학성이 인정하는 기능검정기관인 재단법인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 (www.kanken.or.jp) 및 한국일보 2004년 2월 1일의 신윤석 특파원의 기사를 참조.

증을 받기 힘든 계층에, 한자만으로 국가공인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을 견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초등학교 대상의 사교육시장은 대부분 학습지 회사들이다. 중학교에서는 정규의 한문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 학습지 회원의 대부분은 초등학교생들이고, 이 회사들은 한자능력검정단체와 연계하여 등급시험을 실시하여 그 수수료도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한자교육시장의 확장으로 이어졌고, 한자검정 단체 중 한국어문회 만이 국가공인을 받아 독주하는 상황에 대해 타 단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 1월 27일 기존의 한국어문회 외에 3개 단체에 민간자격으로 국가공인을 관리 운영하도록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올해부터 실시되는 한자·한문능력검정시험은 4개 단체가 관리하게 된다. 본고는 이런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앞으로의 한자·한문교육에 있어서 인증시험의 역할 및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한자·한문에 관한 민간자격 국가공인 기관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한국어문회만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자검정 단체들 중 유일하게 2000년에 공인받아 2001년부터 2년간 한자능력검정을 실시하여 왔고, 2003년 다시 재공인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1>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⁶⁾

소관 부처	자격종목	자격관리자	유효기간	급 수	비 고
	한자능력급수	한국어문회	'03.2.10~'05.2.9	1~4급	
	실용영어	한국외국어평가원	'04.1.27~'06.1.26	1~3급	재공인

6) 교육인적자원부 직업정책교육과의 공개자료에서 다운받아 작성함.

교육 인적 자원부	TEPS (영어능력검정)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TEPS관리위원회	'03.2.10~'05.2.9	1+급, 1급, 2+급, 2급	
	한자실력급수	한자교육진흥회	'04.1.27~'06.1.26	사범, 1~3급	신규
	실용한자	한국외국어평가원	'04.1.27~'06.1.26	1~4급	신규
	한자급수 자격검정	대한민국 한자교육연구회	'04.1.27~'06.1.26	사범, 1급, 준1급, 2급, 준2급	신규
	영어회화 능력평가시험 ESPT-성인	(주)이에스피평가아 카데미	'04.1.27~'06.1.26	1급, 2급	신규

민간자격의 관리 및 국가공인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 직업교육국 산하의 직업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한다. 현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단체는 총46종목에 29개 기관으로 유효기간은 최저 2년에서 최고 5년에 이르고, 그 중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은 위의 표의 한자검증 단체 4개와 영어검증 단체 3개이다. 영어는 자격종목을 보면 검증내용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지만, 한자는 그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좀더 구체성을 부각하여 각 단체를 변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태로는 똑같은 내용을 4개 단체에서 중첩하여 실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위의 표에 있는 한자검증 단체가 실시하는 급수의 종류 및 시행 횟수를 조사한 것이 다음의 <표2>이다.

<표2> 한자·한문 자격검정시험 비교표

자격관리자	공인급수	교육(비공인)급수	실시 횟수
한국어문화	1급, 2급, 3급, 준3급, 4급	5급, 6급, 준6급, 7급, 8급	3회
한자교육진흥회	사범, 1급, 2급, 3급	준2급, 준3급, 4급, 준4급 5급, 준5급, 6급, 7급, 8급	4회
한국외국어평가원	1급, 2급, 3급, 4급	5급, 준5급, 6급, 준6급, 7급, 8급	4회
대한민국한자 교육연구회	사범, 1급, 준1급, 2급, 준2급	준사범, 3급, 준3급, 4급, 준4급, 5급, 준5급, 6급	4회

위의 표에 제시된 것처럼 한국어문회를 제외한 신규 공인 단체들은 연 4회의 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또 공인급수는 각각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등급의 구별에 대한 근거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각 단체들은 공인급수의 자격검정 외에 비공인급수를 교육급수라는 명칭으로 각각 공인급수 시행 뒤에 동일 횟수만큼 한자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재단법인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가 1998년부터 문부과학성의 공익법인으로 선택되어 한자기능검정을 국가의 보조금과 위탁비등의 지원을 받으며 시행하고 있다. 자격시험은 연 3회 실시하고 있고, 한국과 달리 이 기관에서 제시하는 모든 급수(1급-8급)는 공인급수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의 한자검정 등급 및 내용을 정리 한 것이 다음의 <표3>이다.

<표3> 일본 한자능력검정시험 공인급수 및 지원대상

공인급수	지원 대상	공인급수	지원대상
1급	학생 · 사회인	4급	중학교 2년생 이상
준1급	학생 · 사회인	5급	중학교 1년생 이상
2급	고교 3년생 이상	6급	소학교 4-6년생 이상
준2급	고교 1·2년생 이상	7급	〃
3급	중학교 3년생 이상	8급	〃

급수는 지원 대상에 따라 10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것 외에 별도의 틀로 소학교 1-3년생과 일본어를 배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初9급과 初10급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자녀의 일본어 습득의 요망과 외국인의 일본어 연구에 대한 요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해외의 여러 도시에서도 검정시험장소를 설치하고 있다. 즉 '한자를 통하여 일본문화의 전달에 노력'한다는 목표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⁷⁾

7) 재단법인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가 일본문부과학성에 제출한 (국가에서 보조금·위탁금등교부)에 관한 보고서를 참조하였다.(www.mext.go.jp)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관할하는 공익법인의 수는 1,948법인이고, 그 중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는 생애학습정책국에서 관할하는 공익법인 중의 하나이다. 문부과학성은 관할 공익법인에 대하여 3년에 한번씩 내사(內査)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를 통하여 문부과학성이 추구하는 목표는 '한자능력의 검정과 강연·강습회 등을 개최하고, 일본문화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일본의 생애학습 진흥에 기여'함이다. 근년에는 생애학습이 더욱 활성화되어, 고령자들에게 한자검정을 통하여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센터 등에도 보급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협회의 기본방침도 문부과학성이 제창하는 '생애학습'이 실현되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지의 공공시설에서 '한자·일본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한자능력검정시험은 문부과학성의 시정목표를 공익협회의 공조를 통하여 실현함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즉 문부과학성과 공익법인이 교육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사실 검정제도의 필요성도 문부과학성 쪽에서 먼저 제시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문부과학성은 1997년에 대학·전문대학·고등전문학교의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문부과학성 인정의 기능검정이 대학·전문대·고등전문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됨을 발표하였고, 그 이듬해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가 공익법인으로 선정되어 기능검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자검정을 관할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공인을 통해 실현하려는 목표가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각 공인 단체들의 검정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각 단체의 설립취지를 통하여 검정목표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

먼저 한국어문회의 경우를 보자. 이 단체가 제시한 한자능력검정시험 시행의 취지를 정리하면 다음의 세 가지가 된다.⁸⁾

1. 한자는 새천년의 경쟁력이자 평생교육의 주춧돌이다.
2. 한자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미래와 삶에 대한 가장 현명한 투자이다.
3. 우리말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위의 취지 가운데 세 번째의 '우리말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함'의 구체적 내용은 국한혼용체의 확립을 의미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재교(2002)의 상세한 분석과 비판 및 그 개선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특히 "국한문혼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자 위주의 자격시험이 되고 있으며, 현행 중등학교에서의 한문교육의 위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글 전용의 어문정책에도 배치된다"는 논지를 피력하였다. 그리고 그 개선방안으로 "중등학교의 한문교육 체계를 고려하여 한자능력 시험 제도가 추구할 목표를 설정하고 시험유형도 개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재교의 이러한 지적은 당사자인 한국어문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듯하지만, 금년에 신규 공인된 단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점이 드러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래에 서술하기로 한다.

사단법인 한자교육진흥회에서는 별도로 한자검정시험 시행에 관한 취지는 명시하지 않지만 한자자격 시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⁹⁾

1. 한자 사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사고력과 어휘력을 향상시킨다.
3. 교과 학습 능력을 신장시킨다.

이 가운데, 세 번째 특징은 앞의 진재교의 현행 한자 급수시험에 관한 지적을 수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위의 세 가지 특징만으로는 이 단체의 특성을 알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법인의 주요사업을 살펴

8) 한국한자능력검정회(www.hanja.ne.kr)의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시행 취지」를 다룬 받아 정리함.

9) 한국한자급수자격평가원(www.hanja114.org)의 한자자격시험 안내를 다운받아 작성함.

보자.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조기한자교육 및 국한혼용운동'을 주창하고 있는 점과 다음과 같은 구체적 활동이다.

1. 한자교육의 방법론 연구 개발
2. 각급 학교 한자경시대회 개최
3. 한자능력의 평가
4. 현직 한문교사 연수 실시
5. 한자 교육지도사 양성
6. 한자교육용 교재 및 정기간행물 발간.

구체적 활동항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국가공인의 한자검정 시험을 통하여 국한문혼용운동을 전개하고, 또 이 운동을 담당할 '한자 교육지도사를 양성'하고자 함이다. 흔히 한자지도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교육 방면에서 활동하는 한자교육 전문가를 양성함을 큰 틀로 삼고 있다. 한자지도사란 한자·한문교육이 붐을 이루고 사교육 시장이 확장되면서 파생된 한자검정을 지도하는 직업이다.

다음은 한국외국어평가원의 경우인데, 실용한자자격검정을 목적으로 하는 이 단체는 한자뿐만 아니라 실용영어의 자격검정도 국가공인을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자격검정의 목표를 "국제화시대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어의 활용능력과 사무서비스 및 정보처리 분야 등의 직업능력에 대한 자격검정과 직업훈련에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제시하였다. 타 단체와 달리 한문을 하나의 외국어 영역으로 간주하고, 자격검증을 통하여 그 실용적인 면의 활용을 강조하였다.¹⁰⁾

다음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한자교육연구회의 경우이다. 여기도 자격검증을 통한 목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고 대신 법인 설립취지에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고 조상들의 소중한 유산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또 자격검증을 주관하는 한자급수자격검정회

10) 사단법인 한국외국어평가원(www.pelt.or.kr) 평가원 소개를 다운받아 작성함.

의 설립취지로는 “한자·한문 교육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국어생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선인들의 전통을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하였다.¹¹⁾

이 단체는 표면적으로는 ‘국한문혼용’의 추구를 기치로 내걸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국어생활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는 취지에서 그 추구하는 방향성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단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주요사업을 보면 좀더 선명히 부각된다.

1. 한자·한문교육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의식과 도덕성을 고취시킨다.
2. 전통 서당문화를 발전시켜 국민의 지식기반과 인간다운 덕성을 높은 경지로 승화시킨다.
3. 연구 장학 지원을 통한 재야의 우수 연구 인력과 차세대 주역들을 육성한다.
4. 우리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저변 확대를 위한 국역사업과 학술대회와 경시대회 및 강회를 개최한다.(이상의 항목이 모두 한 문장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인용자의 이해를 위해 분절하였다)
5. 외국대학에 한국학 관련 도서를 보급한다.
6. 외국어 번역사업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여 세계 속의 중심 문화를 일구어 낸다.

이상의 주요사업의 내용은 한국문화교류협회의 주요사업이라고 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장대한 사업 중에 한자검증 시험의 위상을 좀더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위의 주요사업 중에서 두 번째의 ‘전통 서당문화의 발전’과 네 번째의 ‘국역사업과 강회의 개최’는 이 단체의 특성화 사업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2004년 1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신규로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받은 한자능력검정단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시스템과 다른 점은 우선 국가차원에 있어서의 정책 선명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고등교육기관의 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 있어서

11) 대한민국 한자교육연구회(www.hanja.net)의 법인소개를 다운받아 정리함.

시설단체가 주관한 검정시험의 결과를 학점으로 수용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그 자격검정을 담당할 단체를 문부과학성 관할의 공익법인으로 삼았다. 즉 한자 습득도 하나의 기능으로 간주하고, 그 기능급수로 대학의 학점 및 고교의 국어 이수단위에 대체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 사정에서 공익법인으로 선정된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는 문부과학성이 추구하는 교육방침을 주요사업의 골자로 하여 시행하였다. 즉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지만 공익법인으로서의 자기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한자검정을 생애교육 실현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단체가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업교육정책과가 기존의 비공인 상태에서 한자자격검정을 시행하던 단체들 중 한 단체에게 국가공인을 인정하였지만, 교육부의 국가공인을 통한 교육정책이 선명하지 않은 탓으로 공인자격을 갖춘 단체는 공익적 교육성향보다는 상업적 이윤추구를 지향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여타의 단체들에서의 불만이 노정되어 결국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새롭게 세 단체에게 공인자격을 인정하여 주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면 자격시험 시장의 이윤 독점은 해소되겠지만, 일년에 평균 4번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관리에 드는 제반 비용과 시험장소의 확보 등을 위한 경쟁의 번거로움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더욱이 검정시험의 등급별 검정기준과 난이도가 상이한 상황에서 각 단체의 한문자격검정은 그 공정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국가공인 한자검정 4단체의 변별성이 희박하여 왜 4개 단체나 필요한지에 의문이 생긴다.

3. 검정기준에 관하여

한자자격검정이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급수의 구별이 합리적인 체계로 나뉘어져 있어야 한다. 앞의 <표2>에 제시된 것처럼, 한국

어문회와 한국외국어평가원은 전체 급수가 10개 급수로 나누어져 있는 반면, 한자교육진흥회와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는 13개 급수로 나누어져 있다.¹²⁾ 그 가운데 공인급수로 선정된 등급에 대한 평가대상의 한자수, 그리고 검정 정도를 조사하여 비교한 것이 다음에 제시된 <표3>이다.

<표3> 각 공인단체 공인급수의 검정정도 비교

공인급수 단체	1등급 (검정정도)	2등급 (검정정도)	3등급 (검정정도)	4등급 (검정정도)	5등급 (검정정도)
한국 어문회	1급 (읽기3,500자쓰기 2,005자, 국한혼용 교전을 불편 없이 읽고 공부하는 수 준, 대학생 일반인 대상)	2급 (읽기2,355자 쓰 기1,817자, 일상 한자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 대 학생 일반인 대상)	3급 (읽기1,817자쓰 기1,000자, 신문 또는 일반 교양어 를 읽을 수 있는 수준, 고등학생 대상)	준3급 (읽기1,400자쓰 기750자, 4급과 3 급의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급수, 중학생 대상)	4급 (읽기1,000자쓰 기500자, 초급에 서 중급으로 올라 가는 급수, 초·중· 고 6학년 대상)
한국 외국어 평가원	1급 (3,500자, 일상생 활과 직무에 능숙하 게 활용, 한문교전 에 능동)	2급 (2,500자, 일상생 활과 직무에 활용, 한문교전 이해)	3급 (1,850자, 읽기 쓰기, 의미 파악, 약자 숙지, 짧은 문장 해석)	4급 (1,500자, 읽기 쓰기, 의미 파악, 상용서식, 간지 등 활용)	
한자교육 진흥회	사범 (5,000자, 지도사 수준)	1급 (3,500자, 고급수 준)	2급 (2,300자, 대학 생 일반인 수준)	3급 (1,800자·교과서 한자어500자 이상 포함, 고등학생수 준)	
대한민국 한자교육 연구회	사범 (5,000자, 한문교 전의 독해 및 국역 을 포함하여 최고급 수준의 전문가 지도 자 양성)	1급 (3,500자, 제7차 고등 한문교육과 정 포함, 한자 한 자어 한문 전 영역 학습)	준1급 (2,500자, 同하)	2급 (2,000자, 同하)	준2급 (1,500자, 同하)

12) 한자교육진흥회는 올해 다시 그 급수의 등급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하여 그 정확한 면모를 파악할 수 없다.

일본 한자 능력 검정 협회	1급	준1급	2급	준2급	3급
	(약6,000자-JIS	(약3,000자-상용	(1,945자-모든	(소학교·중학교에	(상 용 한 자
	제2수준한자, 음	한자 중심, 同左)	상용 한자와 고교	서 공부하는 상용	1,600자 정도를
	과 뜻을 이해하고		까지의 음 뜻, 同	한자 1,945자의	이해하고 문장
	문장 속에 적절히		左, 同교3년 대	대강을 이해하고	속에서 적절하게
	게 사용함, 학생·		상)	문장 속에서 적절	사용함, 同학교3
사회인 대상)			하게 사용함, 고	년 대상)	
			교1·2년 대상)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각 단체에 따라 같은 급수라 할지라도 검정 정도가 각기 다르다. 특히 위의 표에 보이는 검정 한자수와 한자 난이도의 수준을 선별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객관적인 모습을 비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실용 한자어의 경우라면, 신문에 나오는 한자의 빈도수라던가 각 공문서 서식에 사용되는 한자의 빈도수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등급구별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문회의 경우는 일본의 검정기준처럼 각 등급이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럴 경우 초등학교 6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4급 1000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어의 빈도수를 조사한다던가, 아니면 타 학습 교과목의 한자어 빈도수를 조사하여 선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 국어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한자영역을 등급분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8급에서 2급까지는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국어과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분류이며¹³⁾, 1급과 준1급은 컴퓨터용 제2차 수준의 한자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 사용에 필요한 한자수준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2급 이상의 자격검정에 합격하면 고교 및 대학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성립된 것이다. 다만 일본 한자 검정에는 한문능력을 검정하는 문항은 없다. 그것은 초·중학교의 교육 과정에 한문이라는 독립과목이 없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검정목적이 한자를 통하여 원활한 일본어 생활을 지향하고 일본 문화를 알릴

13) 일본의 한자·한문교육의 현황에 관해서는 줄고(2003)를 참조 바람.

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검정기준에 한문능력을 검정하는 항목의 유무(有無)에 따라 검정 정도는 상당히 달라진다. 한국어문회의 기존의 검정문제에 한문 문항이 없었던 점과 공교육의 한문 교육과정이 반영되지 않았던 점이 진재교의 앞의 논문에서 지적된 이래, 신규 국가공인의 검정단체들은 적은 양이지만 한문문항을 첨부하였고 한문과 교육과정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¹⁴⁾

한편 한자교육진흥회와 대한민국의한자교육연구회에는 '사범'이라는 등급이 설치되어 있다. 이 두 단체는 모두 '한자교육지도사' 양성과정¹⁵⁾과 '서당교사' 양성과정¹⁶⁾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파생된 등급이 바로 '사범'이라는 급수이다. 이러한 급수가 국가공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문자격검증을 통하여 직업교육을 실현하려는 직업교육정책과의 의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 한자자격 검증만의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자교육진흥회는 한자지도자연수과정을 설명하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자교육을 담당할 유능한 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하위 급수의 한자자격검증 응시생을 지도할 강사양성 과정의 자격증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이

14) 특히 대한민국의한자교육연구회는 검정기준에 교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을 참조하여 한자 한자어 한문의 틀에 입각하여 검정기준을 마련하였다.

15) 한자교육지도사 연수과정은 한자교육을 담당할 지도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연수이다. 연수를 수료하면 국가공인 한자자격시험 응시자 지도 및 각종 학원 강사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연수일정은 20주 80시간으로 되어 있다. 연수 후에는 소정의 테스트를 거쳐 한자교육지도사 자격증 수여 및 국가공인 한자자격시험 4급 이상 취득 지도를 할 수 있고, 교육급수 준4급 ~ 8급 강사 자격 부여되고, 한자학습 일일 교사 자격부여 된다고 한다.

16) 서당교사 연수과정은 일명 한자·한문 전문지도사 연수로 불리며, 전통서당의 교육의 기본내용을 교육과정으로한 한문지도사 연수과정이다. 여기서 배출된 훈장선생님으로 전국에 3000여개의 서당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의 수료자들은 그 수료 과정에 따라 서당준교사 1급·2급, 서당정교사 1급·2급, 서당훈장, 훈장중1품, 훈장정2품 등으로 구별된다.

런 단기 연수의 수료증 및 자격증 소지자가 사교육 분야의 한자·한문 교육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한자자격검증의 국가공인 단체에 대한 검정정도를 살펴보았다. 등급의 구별과 검정 한자수의 구별 및 한자·한문의 검정내용에 대한 미비점을 진재교가 지적한 이래 약간의 수정을 있었지만, 아직도 완전한 체계를 갖추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부서의 국가공인 검정제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위의 표3에서 보았던 4단체의 등급 및 그 검정내용도 보다 통일성을 갖추고 나름의 특징을 살리는 한자검증이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한자자격검정은 응시자가 어느 단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명암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자 검정시험의 객관성 대해 4단체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4. 한자 한문 인증시험의 실제

실제로 한자검정 응시생들이 접하는 인증시험의 문제지를 분석하여 각 검정단체의 특색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앞장에서 거론된 검정기준이 각각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문제유형의 종류에 대한 비교를 <표4>에 제시한다.

<표4> 한자·한문인증시험(1급)의 문제유형 비교

내용 단체	한자·한자어 영역									한문 영역			
	한자 (어) 읽기/ 쓰기	필수 회수	부수	장단음	유의어 상대어	약자	동음 이차/ 동훈 이차	고서 성어	문장 속의 한자 쓰기	한자 어 구조	단문 쓰기 단문 해석	속담	한시
한국어문화 (1급/17회)	0		0	0	0	0	0	0	0				

한자교육진흥회 (1급/17회)	0	0	0		0	0		0					
한국외국어평가원 (1급10-1A-ST)	0				0	0		0	0		0	0	0
대한민국 한자교육연구회 (1급/21회)	0	0	0	0	0	0		0	0	0	0	0	0
일본한자능력 검정협회 (2급/문제예)	0		0		0		0	0	0	0			

위의 표에서 검정내용의 항목을 우리나라 중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에 준하여 한자·한자어·한문영역으로 나누었다. 다시 그것을 소영역으로 나누어 각 자격검정 단체의 문제유형을 분석 비교하여 보았다.

이제 실제로 한국어문회의 기출문제 중 1급(17회)문항을 분석하여 보자. 문제유형은 한자·한자어 영역에만 속할 뿐, 한문 영역은 제외되어 있다. 전체 200문항은 모두 주관식인데, 한자어 읽기(50문항), 한자의 음·뜻 쓰기(32문항), 한자어 쓰기(40문항), 장단음(10문항), 상대어(10문항), 四字成語(15문항), 부수(10문항), 유의어(10문항), 동음이의어(10문항), 한자어의 뜻(10문항), 약자(3문항)로 이루어졌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 읽기(독음)' 문제는 단순하게 한자어만을 제시하고 그 답을 쓰는 형식으로 다음과 같다.

1.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
 (1)貝殼 (2)格別 (3)姦慝 (4)難盡 (5)堪耐 (6)氣概 (7)坑需
 (8)巾櫛 —— (50)漏洩
2. 다음 한자의訓과 품을 쓰시오.
 (51)竟 (52)牽 (53)叫 (54)紀 (55)瓜 (56)挑 (57)郊
 (58)矯 —— (82)核

위와 같은 문제 유형으로는 한자·한자어에 대한 기억력 평가는 되겠지만, 종합적 사고력을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또 이런 문형은 한문과 교육평가에서 일찍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오던 문제 유형이다.¹⁷⁾ 더욱이 본 단체가 목표로 하는 것은 국한문혼용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한자·한자어만 독립시켜 문항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자주 사용되는 짧은 국한문의 예문 속에서 한자에 관한 평가를 추구함이 타당하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문 또는 어구 속에서 한자·한자어의 의미를 점검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다.

1.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
 - (1) 조개 무덤은 貝殼이 무더기로 쌓여있던 곳이다.
 - (2) 부자 사이에 格別한 정을 나누다.
2. 다음 한자의訓과 音을 쓰시오.
 - (51) 蘧 蘧 정의가 승리하리라.
 - (52) 늦은 저녁 淅淅하는 소리를 들었다.

위에 제시한 한국어문회의 문제유형은 올해 신규로 공인받은 세 단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외국어평가원의 경우 한자·한자어 영역에 관한 평가유형은 거의 한국어문회와 비슷하여 변별력이 없으나, 한문평가 문항을 10문항 정도 첨부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다만,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의 경우는 150문항 중 50문항은 객관식으로 구성하고, 학교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유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주관식 문항의 경우는 위의 예시와 같은 단순 질문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

위의 <표4>를 작성하면서 주목하였던 점은 동음이의어 처리이다. 한글 문장을 표현하면서 필요에 따라 한자표기를 활용할 경우, 가장 어려

17) 한예원(2002), 고승희(2001) 참조.

운 점은 이 동음이의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문제이다. 한글사용에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가 이 동음이의어의 활용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문회만이 10문항 정도 제시하고 있고, 여타의 단체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그런데 한국어문회의 문제유형은 다음과 같이 여전히 단순 질문 형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8. 다음 한자어의 동음이의어가 되게 빈칸을 채우시오.
- (178) 鑄字 - (): 붉은 빛과 자춧빛
 - (179) 鼓行 - (): 외롭게 홀로 감
 - (180) 求愛 - (): 거리낌
 - (187) 汗漫 - (): 기한이 참

이런 동음이의어의 문제도 역시 자주 사용하는 짧은글 속에서 소화할 수 있게 배려하면, 실제 언어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다.

8.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될 한자어를 쓰시오
- (180) 공주는 왕자의 구애를 받아들이다()
 구애됨이 없이 활기차다()

요컨대 한자를 활용하여 국어생활을 돕고자 한다면, 사전 뜻풀이 식의 문제유형은 지양하고 그 한자, 한자어가 사용되는 적절한 한글 문장을 제시함이 바람직하다. 사실 영어 능력 평가에서 단어 그 자체만 제시하고 뜻을 묻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같은 언어이면서 한자어에 대한 위와 같은 문제 유형은, 한자어를 언어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거니와, 더 큰 원인은 한자검정을 통하여 어떤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출발의식이 박약함에서 연유된다 하겠다. 좀 더 각 단계 나름으로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한자검정의 목표를 수립하여 그 실천에 부합

한 문제 유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 개선방안

한자 인증시험은 회를 거듭함에 따라 양적 팽창을 거듭하여 2004년에는 4개 단체가 국가공인의 자격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행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개 단체의 협의를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를 위한 사소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1) 난이도

한자인증시험의 공인급수를 시험 본 응시자나 지도한 교사들에게서 시험의 난이도가 매회 일정하지 않고, 시험 주관 단체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다는 호소를 듣는 경우가 있다. 가령 한국어문회의 시험에 비하여 대한민국의한자교육연구회의 시험의 경우가 난이도가 높았음을 응시자나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또 같은 한쪽 단체의 2급에서 떨어진 응시자가 다른 단체의 1급에 합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것은 난이도의 문제이면서 또한 등급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 한문 문항을 다루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간의 협의를 통하여 난이도 및 등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난이도 설정에 도움이 되는 한자 수준, 한자 어휘, 텍스트 유형, 문제유형 등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출제 지침서로서 4개 단체가 공용하는 것이다. 또 한국어 교육용 어휘에 관한 연구(이충우, 1994)라던가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조남호, 2003) 등을 활용하여 학습한자의 등급목록을 완성하여 문항 및 텍스트의 난이도를 추정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난이도의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서는 각 단체와 단체 외부의 선제 위원들이 설정된 난이도가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2) 검정단체의 상이성

검정 단체에 따라 문제유형, 집필내용이 다르다. 일본의 경우는 공익법인으로 선정된 단체가 모든 등급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4개의 단체가 병립하여 각기 상이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단체가 협의하여 기출문제 유형을 수집 분석하고 새로운 문제유형을 개발하여 출제 지침서를 마련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출제를 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4개의 단체가 병립하는 것을 장점으로 이용하여 각기 특색 있는 검정내용을 마련하여 서로 다양성과 차별성을 갖추어 응시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검정시험에 응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문회가 국한문혼용을 목표로 하는 한자·한자어 검정을 담당한다면, 실용성을 표방하고 있는 한국외국어평가원은 관공서 문서등에 필요한 실용용어의 검정을 담당하여 그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또 한자교육진흥회와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는 자격검정을 지도하는 한자·한문지도사 양성의 전문기관으로서 그 검정체계의 난이도를 앞의 두 단체와 차별하여 한문능력의 검정을 위주로 출제할 수도 있다.

출제된 내용은 공동의 선제위원들에 의하여 객관성 및 합목적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3) 등급제

현행 한자인증시험은 4단체 모두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등급제는 응시자가 해당등급의 검정정도(한자수) 범위내의 한자, 한자어, 고사성어, 한문등을 집중적으로 시험보게 되므로 응시자의 한자 능력을 세밀

하게 판단하게 해준다. 가령 점수제에서는 2급과 3급의 경계에 놓일 경우 그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등급제는 이런 불편이 해소된다. 그런데 단체에 따라 그 등급에 미세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어, 어느 단체에서 몇 급을 하면 어느 단체의 몇급에 합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현상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 각 등급의 출제에는 기존의 한자와 한자어 중심에서 벗어나 문법(허자의 쓰임), 한자어 활용등의 영역을 보충하여 좀더 세밀한 검정정도의 마련이 요망된다. 예를 들면, 몇 등급에서는 한자 몇자의 범위 내에서 한자 및 한자어의 읽기 쓰기, 고사성어의 활용, 한문문장의 문법, 한문문장의 해석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출제한다는 것이 4개 단체의 협의를 통하여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4) 검정료 및 시험장소

현행 한자인증시험은 등급별로 그 검정료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고급일수록 검정료가 비싼 편이다. 그것은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고급급수를 검정단체 별로 나누지 않고 4단체가 공동관리 하게 되면 응시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검정시험을 시행하는 장소도 등급별로 공동관리를 한다면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단체별로 각기 다른 날짜에 공인급수와 교육급수를 나누어 실시하기 때문에 장소확보도 쉽지 않은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단체응시생들에 대해서는 수시응시도 실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 본 논문은 2004. 6. 28. 투고되었으며, 2004. 7.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4. 7. 25.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고승희(2001), 『중학교 한문과 학습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성대석사학위논문.
이충우(1994), 『한국어 교육용어휘 연구』, 국학자료원.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진재교(2002), “현행 한자·한문 급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문교육연구』 19호.
한예원(2002), “중학교 한문과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문교육연구』 19호.
한예원(2003), “일본의 한자 한문교육 현황”, 『한문교육연구』 21호.

<초록>

한자·한문 인증 시험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예원

올림픽을 전후하여 한자·한문 학습의 열풍이 전국을 강타한 이래, 한자·한문의 사교육 시장과 자격 검정 인증 시험 시장은 날로 확장 일로이다. 특히 올해는 한자 인증 시험의 응시자가 100만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이 세워질 정도이다. 이에 한자·한문교육에 있어서의 인증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어문화에게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주관하는 국가 공인자격으로 인정하였고, 올해 2004년 1월에는 어문회 및 3개 단체에 민간자격으로 국가공인을 관리 운영하도록 선정하였다. 이 4개 단체의 한자 인증시험의 운영방법은 대체로 일본의 한자능력검정시험과 대동소이하지만 검정결과와 활용 면에서는 차이가 생기고 있다.

일본의 검정기관은 공익법인으로 국가의 교육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하는 모습을 갖추었으나, 한국의 검정기관은 교육정책을 반영하는 공익단체로서의 성향보다는 상업적 성향이 강한 편이다. 일본의 경우는 검정시험의 응시자의 70%가 중학생 이상이고, 검정결과가 고등학교 및 대학의 국어학점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응시자의 70%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고 공인급수가 아닌 이른바 교육급수를 응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자·한자어의 자격검정 등급을 구별함에 4개 단체의 협의를 통하여 객관적이 합리적인 등급원칙이 세워져야할 것이다. 또 한문과의 교육내용 및 교과서에 사용된 한자어의 빈도수를 조사하여 검정내용의 근거를 삼을 필요가 있다. 한문 능력의 검정을 통하여 일본의 검정시험과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특색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특히 한문 문제는 가능한 한 중·일 삼국의 한문고전에서 골고루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어】 한자능력인증시험, 공인급수, 국한문혼용, 검정목표

<Abstract>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Chinese Characters and
Literature Authorization Test

Han, Yae-won

As enthusiasm of Chinese characters and literature learning has prevailed in our country since the 1988 Olympic games, private lessons for Chinese characters and authorization test markets has been expanding. In particular, this year, there is a prediction that applicants for the test amount to one mill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resent problems of authorization tests and their improvement plan.

In 2001, the Ministry of Educational and Human Resources designated the Korean Language Association as a national certification organization which governs Chinese Characters Fluency Test. In January 2004, three different organizations including the Association were designated to privately manage national authorization. The management styles of the four organizations are similar,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ways to use the results of the test.

Japanese test organizations reflect its educational policy as a public foundation while Korean organizations has a distinct leaning towards private interest. For Japan, 70% of the applicants are middle school students or so, and the results of the test are admitted as credits of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However, in our country, as 70% of the applicants a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grades of the test are not properly used, th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Objective and reasonable classification of the grades of the authorization should be achieved through an agreement of the four organizations. And, educational contents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and fluency of Chinese characters used in text books should be investigated and

the results can be used as a base of tests. Our distinct system of the authorization test should be developed, and in particular, for sino-Korean (Chinese literature) tests, question items should be equally collected from Chinese classics of Korea, China and Japan.

【key words】 Chinese Characters Fluency Authorization Test, Authorization Grade, Mixed Use of Korean and sino-Korean Language, Test Goals